

가족을 위한 좋은 활동 따로 있다

김진명 / 내일신문 기자

“예전에는 자원봉사자 구한다는 광고가 나가면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도 ‘돈은 얼마나 주나요’ 하는 질문만 하고는 끊어요.” 얼마 전 만난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단체의 동력 자원봉사자를 충원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주부들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소득’이 있어야만 활동하겠다고 한다.

또 다른 단체도 비슷했다. 학부모 모임을 꾸렸는데 참가자가 너무 적어 활동가가 지인들 ‘설득’에 나섰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몇차례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바빠서’ 지속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내뱉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설립된 지 십수년은 되었으며 언론에도 그 활동상이 자주 비춰진 꽤 이름난 곳들이다. 당연히 자원봉사자도 줄을 이었다. 30대와 40대 주부들이 주류였다. 소위 말하는 ‘가방 끈 긴’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집안에만 묶여 있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자기 역량을 발휘할 곳을 물색했고 사회를 위해 한 몫을 한다는 긍지를 갖게하는 시민단체는 그런 주부들과 잘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다. 시민단체 활동에서 보람을 찾았던 30·40대 주부들 중 다수가 시민단체를 더 이상 매력적인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 손바닥만한 사무실에서 소소한 도움을 주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야 하고 그런 와중에 내 주머니까지 털어야 하고, 한가지 봉사하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봉사까지 해야 한다.

그보다 차라리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쓰거나 하다못해 내 건강이나 이웃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바빠지는 게 낫다. 굳이 봉사를 해야 한다면 내게 득이 되는 게 있어야 한다.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원봉사 활동 이후에 돈벌이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좋고 아니면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실질적인 도움(눈도장이라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주부들의 항거(?)가 아주 틀린 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자원봉사 하면 무보수 노동으로 취급해왔다. 상황이 열악한 시민단체는 봉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고사하고 계속 활용하다 못해 때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영역까지 맡기곤 했다. 그러나 많은 주부들이 자원봉사를 기피하는(?) 이면에는 표면적인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 일은 하고 싶으면서 시간 투자는 적고 수입은 많고 우아한 직종만 찾는 심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이가 학원에서 강좌를 듣는 동안 다른 어머니들과 수다를 떨지않던 그 시간에 마련된 어머니 강좌는 외면하는 심리외도 통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원봉사는 분명 득이 되는 일이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중인 여성 네명 중 세명 이상(75.3%)이 ‘단체활동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고 답한 것이다. ‘자녀교육이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고(67.3%) ‘자녀교육에 좋은 영향’을 줄(67.7%) 뿐 아니라 ‘가족관계가 좋아’ 지는(55.3%)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란다. **PEEK**